

고난 주간 목요일 아침

본문 - 매일성경 마가복음 15장 1-15절

#1.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데는 더디고 때론 주저하지만,

거짓과 불의를 행하는 데는 빠르고 모두 하나가 됩니다.

결박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주님께 넘겨줘야 하는데,

반대로 진리되신 예수님을 빌라도(세상)에게 넘겨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새벽에... 의논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 새벽에 의논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새벽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들은 그 새벽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불의를 의논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새벽)에,

우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 자신을 쳐서 결박하여 주님 앞에 기도와 묵상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일임을 깨닫습니다.

#2. 무리에게 넘겨진 예수님

2절,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9절,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12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세 번이나 표현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꼬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압니다.

10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앞이러라”

그런데도,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리들에게 넘겨준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만족에만 의식하고 신경쓰다가, 빌라도처럼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죄를 행할 때가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3.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님

15절, “... 바라바는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이후,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마 27:24)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공범자입니다.

'나는 무죄하다'고 선언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와 자기 정당화를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직 십자가에 넘겨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이 됩니다.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며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면서,

그동안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는 그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만이 "너는 무죄하다"라고 선포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4. 에필로그

어제까지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43만명이 넘었습니다.

급속도로 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모두 조심하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나갈 일이 있을 땐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철저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 육체를 죽일 수 있지만, 죄는 내 영혼을 죽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민하고 조심하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조심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결박당하신 채 빌라도에게, 무리들에게,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결박하여 그 예수님께 나를 넘겨주는 자가 될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고요히 나 자신을 주님께 넘겨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